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왜 신천지로 몰려오는가?”... 신천지 베드로지파 광주교회 말씀대성회 ‘성황’

광주시민 5000여 명 참석, 신앙의 참 의미 깨달아

‘빛고을 광주, 하늘이 열리고 진리의 빛으로 깨어난다. 와보라!’

“당신은 거짓 비방만 듣고 왜곡된 인식으로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드는 ‘편파적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는 ‘정의로운 사람’인가요? 이제부터 ‘신천지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 이만희) 베드로지파 광주교회가 지난 17~18일, 20~21일 오전과 저녁에 걸쳐 개최한 ‘진짜 바로 보자, 신천지 말씀대성회’에 광주시민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빛고을 광주, 하늘이 열리고 진리의 빛으로 깨어난다. 와보라!’라는 주제로 열린 베드로지파 광주교회의 ‘말씀대성회’ 행사는 약 8500명 규모의 성전도 비좁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인산인해를 이뤘다. 평소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광주 시민들과 일반 신앙인, 베드로지파 성도 가족들을 대상으로 신천지예수교회 및 종교와 신앙에 대해 알려주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번 말씀대성회는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종교와 신앙의 참 의미, 신앙의 목적지 등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신천지예수교회의 올바른 신앙과 높은 신학 수준이 인정되어 성경기준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개최하게 됐다.

이는 신앙인들이 신천지예수교회와 기성교단의 ‘교리비교 영상’을 통해 성경적 참된 교리와 거짓교리를 분별하고 신천지예수교회의 탁월한 말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말씀대성회에서 이정우 강사는 ‘종교와 사람과 신앙의 길’이라는 말씀주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예수교회로 오는 이유 ▲종교란? ▲신앙의 의미와 목적 ▲선과 악 등의 내용으로 강의했다.

이정우 강사는 첫날 강의에서 “종교란 신의 뜻과 가르침이며 신앙은 신의 뜻을 깨달아 믿고 지키는 것이다. 신의 뜻을 알려주는 방법은 바로 경서를 통해서다. 우리는 경서 곧 성경 안에서 신 곧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말씀대성회에 참석한 5000여 명 중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길 원하는 참석자에게는 신천지예수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온기독교선교센터(이하 선교센터)에서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말씀대성회에 참석한 김덕현(48) 씨는 “성경 말씀대로 신앙한다는 신천지는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했다. 사람들이 신천지에 대해 나쁘게 말해서 두려워했는데 직접 와서 보고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나 좋았다. 성도들도 다 밝고 말씀도 어느 교회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성경 해석이었다”면서 “신앙의 근본이 오직 성경 말씀임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알았으니 앞으로도 더 말씀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지재섭 베드로지파장은 “광주에서 성경 말씀 세미나에 5000여 명이 참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의 참 뜻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없어서 많은 신앙인들이 답답해하고 있다는 증거다”라며, “학생이 학교에서 교과서를 배우듯 신앙인은 영적 교과서인 성경을 배우는 것이 당연하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새 언약’인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하고, 그것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알아야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천지예수교회 12지파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베드로지파는 2008년 1만여 명에서 2018년 현재 3만4000여 명에 이르러 10년 동안 300% 성장으로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의 베드로지파 선교센터 수료생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4295명 ▲2015~2016년 6327명 ▲2017년 2625명 ▲2018년 상반기 3111명으로 5년 사이에 2만여 명에 달하는 수료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도 매달 200~300명 정도가 광주·전남지역 내 35개의 선교센터에서 성경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내년에 있을 선교센터 수료식을 위해 3000여 명이 대기 중이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배우기 위해 몰려오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선교센터가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과 지재섭 베드로지파장(지난 6월 베드로지파 수료식)



▲ 신천지 베드로지파 광주교회 전경



▲ 이정우 강사가 ‘종교와 사람과 신앙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



▲ 신천지 광주교회 홍보단이 교회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신천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